## 특별기고

이효원

# 시민회관 전면 철거 재고해야

광주는 문화도시이거나, 혹은 문화도시를 지향하는 도시이다. 문화가 한 도시만의 특성일 수는 없다. 역사적, 지역적 배경과 현재의 양상에서 광주를 문화도시라는 부르는 것은 일정 부분 합당하다.

문화도시는 역사를 통해 생성된 유무형의 문화적 자산과 그리고 현재에서 향유하고, 새로운 것을 생산해내는 사람들로 달성된다. 예로부터 문인화가 발달했다고 해서, 혹은 현재 비엔날레를 연다고 문화도시가 되는 것은 아니며, 이것들은 그것을 성취하는 하나의 '켜'에 불과하다. 그 켜들이 복합적이며 다양하게 중첩되고 얽혀야 문화도시다.

건축물은 도시의 역사와 현재를 구성하는 중요한 켜이다. 건축물이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대개 3가지 정도이다. 첫째는 '이걸 인간이 만든거야?'라고 물을 만큼 경외스런 건물이다. 둘째는 한참 논란이 되었던 구 전남도청의 별관처럼 뚜렷한 역사적 사건의 배경이 되었던 건물이다. 셋째는 에펠탑과 같이 당시 새로운 재료인 철이라는 재료의 사용과 아울러 산업혁명의 의미를 적절하게 표상해낸 시대적 소명의 사물로서 건물로서 그 완성도가 뛰어난 건축물 등이다.

감히 말하건대 광주에 이러한 사례는 몇 없다. 그래도 지나온 시간이 엄연하니, 어쩔 수 없이 가치를 발굴해 내고, 역사로 만들어내야만 한다. 등록문화재라는 이름으로 근대건축물을 지정하여 보존하고 있다. 이것들은 대개 시기적으로 1950년대 전후, 약 50년 이상 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문제는 개인의 소유이거나, 이보다 시기가 늦은 1960~70년대의 건축물이다. 시기적으로 등록문화재는 될 수 없고, 사회적 효용성이 문제가 되어 철거되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광주시민회관이 철거되기로 결정되었다. 광장으로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 한다. 하지만, 광주시민회관은 그냥 철거되기에 너무나 아쉽다. 광주 역사에 있어 영화관을 제외하고는 관람집회시설이 별로 없던 1970년대 당시 시민의 의지가 반영돼 건립된 광주 최초의 대규모 문화공간으로서의 역사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또 한국의 근현대건축에 있어, 1950년대 근대건축양식과 1970년대 포스트모던 건축양식 사이에 그 전이과정을 그대로 담아낸 완성도 있는 건축물로서 건축사적 가치가 있다. 근대 이후 철근콘크리트 건물이 도입된 이후 이를 한국적으로, 아니 광주적으로 변용해 낸 중요한 사례이다.

셋째는 도시적 관점에서 좋은 도시는 역사적인 켜가 중첩되어 있어야 하고, 적절한 공원이나 광장이 있어야 하며, 이를 즐기는 시민이 있어야 한다. 뉴욕의 센트럴파크 의미는 그것이 도심 한복판이 있기 때문이며, 베니스의 산 마르코 광장은 켜켜이 중첩된 역사적 건물을 그 배경으로 두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시민회관은 광주공원 광장을 광장답게 만드는 중요한 배경일 수 있다. 그 역사성이 그렇고, 또 그 형태가 그러하다. 시각의 연속성을 유도하기 위하여 자연스러운 원호의 모양으로 전면부를 구성한 방식, 2층의 돌출된 원형 창문 등은 그 광장을 의미 있게 할 중요한 자원이다. 대한건축사협회에서 수여하는 공공부문 작품상을 수장한 작품이기도 하다.

광주시민회관은 열악한 경제적 환경과 건축기술, 건축문화에 대한 낮은 이해 속에서 건축에 관한 세계적 조류에 대하여 광주만의 응답을 한 건물이며, 당시의 시대적 소명을 일정 부분 수행해 낸 건물이다. 이런 건물 많지 않다.

이렇게 허물고 나면 앞으로 20년 뒤, 어떤 건물을 등록문화재로 지정할 것이며, 1970년대의 역사와 문화는 무엇으로 나타낼 것인가?

〈전남대 건축학부 교수〉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기고

전태갑

# 광주 상품거래소 공약 지켜져야

광주시에 상품거래소가 설립되어야 한다는 움직임이 거세게 일고 있다. 이에 부응하여 광주시와 광주상공회의소가 주축이 되고 광주상품거래소 설립추진위원회가 결성되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상품거래소란 농산물, 에너지 자원, 철광제품, 녹색산업 생산지수, 기후지수 등 제반 상품을 현물, 선물형태로 거래하는 거래소다. 거래단위와 시간, 상품, 거래단위 등이 표준화, 규격화되어 있어 거래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고 세계와의 거래를 원활하게 수행하는 우주촌 경제를 실현하는 최첨단 거래소이다.

덧붙여 실물경제의 가격변동 리스크를 최소화하여 시장경제의 효율을 높여주는 기능을 수행한다.

미국이 선두주자가 되어 밀, 옥수수, 대두 등의 농산물의 상품거래를 시작했고 일본에서는 콩, 팥, 고구마, 녹말 등을, 호주는 생우, 양모 등을, 오스트리아에서는 원목, 모피, 가죽 등을 거래하여 선물거래가 시발하여 점진적으로 전진적으로 세계와의 농산물거래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1999년에 부산에서 상공회의소가 중심이 되어 금융상품거래소를 설립하고 금융상품의 거래가 이루어져 왔다. 짧은 기간이지만 급성장을 거듭하여 2007년에는 세계 제일의 거래량을 나타낼 만큼 활성화되고 있다. 그러나 그 많은 종류의 상품을 거래하는 거래소는 한국엔 없다.

우리나라도 상품의 거래소가 필요한 때가 됐다. 그 위치는 농산품 생산이 가장 많은 호남이 적지다. 농산물 다음으로 에너지 자원과 산물, 그 다음 철강, 해상운임지수, 기후관련제품, 탄소배출권, 신재생에너지 전력인증서(REC) 등 제반 상품의 생산량은 우리나라에선 호남이 가장 많다.

광주 상품거래소의 형태는 기업공개형 주식회사보다 회원제 주식회사가 더 타당할 것으로 판단한다. 더불어 다양한 회원제를 도입하여 선물회사나 증권회사 외에도 실물업계와 지역의 다양한 주체들을 거래회원으로 영입하여 유동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시기적으로 광주에서 상품거래소 설립을 추진하게 되니까 전북, 인천, 대구 등 타 대도시에서도 이를 욕심내고 추진하려 하고 있다. 물론 정치적인 고려도 기대한다. 부산의 선물거래소도 김대중 대통령의 선거공약으로 이루어졌듯이 광주 상품거래소는 이명박 대통령의 선거공약이었음을 주지하고 실현되기를 기대한다. 사회적으로는 서울-부산-광주의 대칭 지역발전이 여러 가지 발전구상에서도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광주 상품거래소가 설립된다면 다음 몇 가지 기대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첫째, 고용이 증대될 것이다. 둘째, 광주은행을 주거래은행으로 지정함으로써 주거래은행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셋째,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파급효과를 누리게 될 것이다. 파생상품 관련학과나 전공학과의 신설을 통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효과를 누리게 될 것이다. 넷째, 지자체의 관련 세수가 증대될 것이다.

한국의 발전추세나 세계화의 추세, 그리고 한국 내의 지역발전과 균형발전, 이명박 대통령의 선거공약 실현을 위해서도 광주에 상품거래소가 설립되기를 기대한다.

〈광주상품거래소 실무추진단장·전 전남대 교수〉

## 기고

김원태

# 고귀한 친구

고귀한 친구가 되는 것은 우리의 기쁨과 희망이다.

볼펜 중에 모나미153이 있다. monami는 '나의 친구'라는 말이다. 친구가 153명 있으면 훌륭한 사람이고 성공한 인생이다. 베드로가 그물로 잡은 물고기 숫자가 153이다. 송삼석씨의 아이디어로 모나미153을 볼펜에 새겨 넣었다. 그 이후에도 이 상표를 사용하여 기적같이 판매가 잘 되어 성공했다.

친구란 이해와 인정과 사랑의 관계가 있으며, 시련, 환난 그리고 고통이 있는데 큰 위로와 도움이 되는 존재라고 말할 수 있다.

만나는 모든 사람이 다 친구가 되지는 않는다. 나의 동창회 수첩에 광주회원이 200명 정도 수록되어 있는데 그중 153명은 잘 알 수 있는 동창이다. 그러나 그 153명도 모두가 서로 이해하고 상부상조하지는 못하므로 '친구'라고 하기엔 미흡하고 오랜 '고우' 또는 '벗'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고 보면 동창이란 구체적 도움을 주고받지는 못하지만 오랫동안 정을 잊지 아니하고 끈끈하게 마음으로 이어지고 있는 고우라고나 할까.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진짜 친구는 몇 명에 불과하다.

이제 일선에서 은퇴하고 나이도 들었으니 나에게 발생할 이익을 위해 친구를 사귈 필요는 없다. 배고픈 친구에게 곰탕이라도 한 그릇 대접할 수 있는 친구가 되어야 하겠다.

"강도를 만나서 장사한 것을 다 뺏기고 얻어맞아 죽어가게 된 사람이 있다. 길거리에 던져져 놓였는데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그냥 지나간다. 그러나 한 사마리아인이 그를 도와 상처를 싸매주고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신약성서에서 잘 알려진 착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다.

아무리 가까운 집단이라도 내가 곤경에 처했을 때 돌보아주지 않는 자는 친구가 아니다. 물질적으로 도울 수 없으면 말로라도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어야 하고, 마음으로라도 격려해 줄 수 있어야 한다. 삶의 영역에서 직장동료가 생활을 공유하고 상부상조할 수 있으니 가까운 친구일 수 있다. 도움을 주고 살아야 한다. 그래야 주위에 친구가 형성된다.

돕는 일은 사랑이다. 사랑이 있어야 돕는 일이 된다. 말과 혀로만이 아니고 행함과 실천함으로 나아가야 한다. 친구 같은 남편, 또 친구 같은 아내는 많이 볼 수 있다. 서로 돕는 일을 하고 있으니 남편과 아내는 참 좋은 친구다.

고 금호 박정구 회장과 광주일보 김종태 회장은 생존시에 동기 동창들을 다수 일자리를 만들어 주기도 하고, 돕는 일을 했기 때문에 많은 친구 관계를 유지했다. 도움을 받은 친구들은 영세불망 잊지 아니하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두 분을 아쉬워하고 그 사랑을 그리워하는 친구가 많다.

인류를 위하여 공헌한 사람들은 우리들의 고귀한 친구다. 에디슨과 같은 발명가는 참으로 좋은 친구가 된다. 남을 돕고, 사회에 도우는 일을 하면 고귀한 친구가 되는 것이며, 더욱 새로운 꿈이 솟구치는 느낌을 갖는다.

성공해서 큰 재를 만들어 사회 환원 문화에 참여한 록펠러, 카네기, 빌 게이츠 그리고 한국인 다수가 국가에, 사회에, 어느 재단에 많은 돈을 기부하여 은혜롭고 고위한 친구가 되고 있다. 으라차차 힘을 내자, 친구야! 사회환원을 통하여 고귀한 친구가 되어보자

〈전 동아여중교장〉

# 청소년에 술 판매 행위 엄중 처벌 바람직

요즘 청소년들의 범죄는 날로 증가하고 폭력의 수준도 무척 강해졌다. 탈선 청소년들 혹은 범죄와 관련된 10대들의 상태를 TV를 통해서 보면 대부분이 음주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는데 학교나 교육당국에서는 10대 청소년들의 음주행태에 대해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우리보다 훨씬 더 개방적이라는 미국은 어떤가.

필자가 미국에서 경험한 청소년에 대한 음주 통제는 실로 살벌함, 확실함, 철저한 법치 그 자체였다.

사복 경찰과 주류통제국 직원들이 합정단속을 통해서 술을 파는 수퍼를 철저히 가려내 엄중 처벌한다.

단속이 이 정도니까 미국의 수퍼 주인들은 어떤 사람에게든 나이가 확인되지 않으면 절대로 술을 팔 엄두조차 내지 않는다.

청소년 음주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사람은 그 어떤 제도보다 이들에게 술을 파는 수퍼 주인들이므로 이분들이 모든 청소년들은 다 자기의 친자식이라는 생각으로 술 파는 행위를 삼가야 한다.

▲오동은·광주시 동구 금동

# 새로 입주한 사무실 공기 안좋아 서로 관심 가져야

얼마 전 회사가 새로 지은 빌딩에 들어갔는데 눈이 따갑고 기침도 자주 나왔다. 새 건물이다 보니 환경호르몬이 매우 많이 나오는 것 같았지만 그것 때문에 빌딩 입주를 포기하고 나올 수는 없는 노릇이라 모든 직원들이 참고 다니고 있다.

그만큼 삶의 환경에 대해 신경을 많이 쓰는 요즘인데 직장인들이 근무하는 빌딩은 환경호르몬에 대해 너무들 무관심한 것 같다. 직장인들의 경우 하루 24시간 중 3분의 1 이상을 회사 사무실에서 지내는데 회사 사무실의 공기는 생각보다 몹시 나쁘다고 한다. 일전에 환경단체가 조사한 발표를 들으니 톨루엔이라는 물질은 눈과 목을 상하게 하고 발암성 물질인 벤젠도 대부분의 사무실이 선진국의 기준을 초과했다고 한다.

내가 다니는 직장은 바닥에 카펫을 깔아 놓았는데 그냥 보기에 좋고 발을 밟는 촉감은 훨씬 좋지만 이 같은 카펫으로 인해 사무실 안의 공기는 무척 안 좋다고 한다.

얼마 지나지 않아 문을 꼭꼭 닫고 사는 겨울철이 온다. 호흡기 질환마저 일으키는 사무실의 공기 환경에 모두의 관심이 있어야 겠다.

▲김세준·광주시 남구 도금동

## 사설

# 남북 이산상봉 확대·정례화 바람직하다

정부가 북측에 이산가족 상봉의 정례화를 제의하는 한편 그 규모도 확대하는 것을 검토키로 했다. 지난 11일 북한의 조선적십자가 대한적십자에 추석을 맞아 이산가족 상봉을 제의한 것과 관련해 정부의 입장을 밝힌 것이다.

북한 조선적십자회 장재언 위원장은 유종하 한적 총재에게 "쌍방은 북과 남의 흩어진 가족, 친척들의 상봉을 진행해 이산가족의 아픔을 덜어주고 혈육의 정을 두터이 한 좋은 전례가 있다"며 "올해에도 상봉을 금강산에서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남북은 1년 전에도 추석을 맞아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했었다.

북측의 이 같은 제안은 남측의 수해지원에 앞서 이산가족 상봉을 통해 남북관계 분위기를 호전시키려는 것으로 보이며, 실무접촉을 통해 이산가족 상봉 문제뿐 아니라 인도적 지원을 요청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는다. 또한, 대북 제재국면을 완화하려고 국제사회와 남측에 보내는 적극적인 제스처로 보인다.

이 같은 북한의 갑작스런 제의는 그 의도가 어디에 있든 인도적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남북 긴장 완화를 위해서도 환영할 만한 일이다. 특히 이산가족 상봉은 통일에 앞서 남북 간 교류의 가교이자 기초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하지만, 이산가족 상봉은 이벤트용 1회성 행사로 끝나선 안 된다. 여생이 얼마 남지 않은 이산가족 1세대의 한을 풀어줘야 한다. 실제로 현재 등록된 이산가족은 12만여 명인데 이미 4만여 명이 유명을 달리했다고 한다. 이 가운데 70세 이상이 6만여 명이다. 이산 상봉을 자주, 그리고 규모를 확대해야 할 이유다.

따라서 북한은 진정성을 갖고 우리 정부의 이산가족 상봉의 정례화 제의를 수락해야 한다. 정부도 북한의 이산가족상봉 제의를 계기로 대북 인도적 쌀 지원 재개 등 여기에 부합되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 지자체장 측근 요직 기용 '논공행상' 아닌가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딸의 특혜 채용사건 이후 각 지방자치단체도 특채 및 낙하산인사 등에 대한 논란이 뜨겁게 일고 있다. 일부 단체장들은 '내 사람 심기'가 지나쳐 공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많다. 특히 전완준 화순군수는 간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선거 비협조자를 가리기 위해 통화내역을 요구했다니 개탄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광산구는 최근 단행한 인사에서 임용된 지 두 달밖에 안 된 구청장 비서를 승진시키고 구청장 인수위원회에서 활동한 것으로 알려진 인사 2명을 직소민원실장과 기획관리실 홍보 분야에 특채해 물의를 빚고 있다. 특별임용시험 공고를 내고 공모를 거쳐 선발은 했지만 사실상 내정을 한 뒤 형식적인 순서를 밟았다는 지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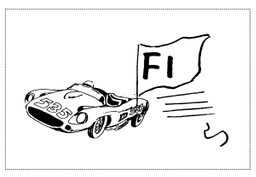
광주 남구는 감사담당관을 개방형 직위로 임용하면서 구청장 측근으로 인수팀장을 지낸 인사를 선임해 '제사람 심기'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광주시는 서울사무소 홍보팀에 수도권 국회의원의 사촌동생을 특채 했고, 현재 광주시 산하 기관장인 A씨와 B씨의 자녀가 산하 기관에 채용돼 특혜 시비를 낳고 있다.

물론 단체장이 취임했으니 인적 진용을 새로 짜는 것은 불가피할 것이다. 그러나 '코드·정실인사'는 공무원들의 자체 승진 기회를 차단해 사기 저하와 함께 반발을 불러오고 '편 가르기'로 이어져 악순환을 낳게 된다. 인수위 인사들의 요직 기용은 선거 논공행상의 수단으로 전락하거나 인사와 업무에 부정적 영향력이 개입될 소지가 다분하다.

이는 지역 살림에 최대 역점을 둬야 할 '풀뿌리 민주주의' 정신과도 맞지 않다. 단체장들에게 더 급한 일은 지역발전 계획을 치밀하게 준비하고 공약이행 방안을 점검하는 일이다. 당장 발등의 불인 재정과 주민들의 복지 확대가 최우선 과제다. 분명 4년 후 선거가 말해줄 것이다.

## 無等鼓

포뮬러 원




사람이 타고다닐 수 있는 승용차가 첫 선을 보인 것은 불과 1세기 전의 일이다. 니콜라우스 A. 오토가 1876년 4행정 내연기관을 발명한 것이 토대가 됐다. 카를 벤츠와 고틀리에프 다임러는 9년 뒤 이를 기반으로 가솔린 자동차를 완성했다. 당시 최고 시속은 16km.

가솔린 자동차는 인간의 '질주 본능'을 자극해 속도 경쟁에 불을 붙였다. 1894년 프랑스에서는 파리~루앙 간 첫 자동차 경주가 펼쳐졌다. 도시간 장거리 레이스가 성행하면서 시속 100km까지 속도를 낼 수 있게 됐지만 차체가 튼튼하지 못한데다 성능 제한 규정도 없어 전복 등으로 죽는 사람이 많아졌다. 참가자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일정한 규격(포뮬러)을 만들 필요성이 커진 것이다. 1906년 열린 제1회 프랑스 그랑프리는 차량 중량을 1,000kg 이하로 제한했다.

하지만, 레이서들은 정해진 규격 내에서 끊임없이 최고의 성능을 추구해 나갔다. 포뮬러 원(Formula One·F1)은 운전석 하나에 타이어가 차체 밖으로 나와 있는 1인용 자동차 경주대회로 1950년부터 시작됐다. '머신(Machine)'이라 불리는 경주용 자동차는 굉음과 함께 최고 시속 350km로 질주할 수 있게 됐다.

F1은 연간 30조 원이 투입되고 400만 명이 경기장을 찾으며 180여개 국가에 생중계돼 6억 명이 지켜보는 초대형 대회로 성장했다. 월드컵, 올림픽과 함께 세계 3대 스포츠 이벤트로 꼽히는 이유다.

영암에서 열리는 'F1 코리아 그랑프리'가 40일 앞으로 다가왔다. 국내에선 처음 개최되는 이번 대회는 전남과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F1조직위와 전남도, 운영법인 KAVO가 준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지만 미진한 부분이 많아 나라 안팎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성공 개최'의 염원에 부응하기 위해 막바지 작업에 '스피드'를 내야할 때다.

/정후식 정경부장 who@kwangju.co.kr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 金鐘宅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曺庚完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편 집 부 2200-649 정 경 부 2200-612 〈대표 FAX 222-4918〉 사 회 부 2200-616 〈대표 FAX 222-4267〉 문화생활부 2200-661 여론매체부 2200-621 체 육 팀 2200-697 사 진 부 2200-693 조 사 부 2200-571 전 산 팀 2200-685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홍보국 2200-54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광고마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디 자 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기획사업국 2200-555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